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구름 속에서

심 윤 경
소설가

어떤 양면성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 나에게는 대학교 3학년 겨울에 떠났던 해남 여행이 그랬다. 나를 포함한 네 명의 여학생들이 배낭 하나씩 들고 땅끝마을로 향했고 즉흥적으로 보길도까지 다녀왔다. 넷 다 주머니가 가벼웠으나 열정적으로 많은 곳을 다녔으며 잊지 못할 경험들을 했다.

우리는 광주역 앞 음식점에서 여행의 첫 끼니를 해결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는 틈새 시간에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하는 흔한 식당들이 십여 개나 늘어서 있었는데 그중 하나였다. 벽에 높직하게 올라 붙은 메뉴판에는 30가지가 넘어 보이는 음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메뉴판을 보면서 음식을 고르기 시작했는데, 볶음밥·김치찌개·된장찌개 등등의 평범한 메뉴가 물망에 오르는 순간 불벼락이 떨어졌다.

"통일해 이X들아!"

갑작스러운 욕설에 번쩍 각성되어 우리는 1초 만에 볶음밥 4인분으로 통일했다. 주방에서는 계속해서 욕설이 쏟아졌다. "싸가지 없는 X들이 처싸돌아댕기면서 사람 바쁜 시간에 이거저거 시켜쌓고 싸가지 없는 X들이…."

우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각자 먹고싶은 것을 주문해 잘 먹고 있었다. 우리는 놀라고 부끄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분을 상한 것은 분명해서 음식을 먹지 말고 나갈 것인가 조용히 의논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번개처럼 빨리 음식이 나왔다. 우리는 대충 먹고 얼른 떠나자는 눈짓을 주고받으며 상한 마음으로 말 없이 볶음밥을 한 입 먹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최대의 반전이 일어났다. 볶음밥은 정말이지 태어나 먹어본 어느 유명 음식점보다도 뛰어나게 맛있었다. 기차역 앞 허름한 음식점에서 호남의 손맛을 볼 것이라고는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 얼굴을 예의주시하던 사나운 주인아주머니는 껄껄 웃기 시작했다.

"어딜 가거든 싸가지 있게 굴어! 기집애들이 사람 바쁜 데 눈치 없이 굴지 말고!"

그 말에는 분명히 아까와는 다른 온기가 묻어 있었다. 우리는 마지막 밥풀 하나까지 싹싹 긁어먹고 아주머니와 서로 웃음 섞인 인사를 주고받은 후 버스를 타고 해남으로 향했다.

나는 이 일화로 술자리의 좌중을 즐겁게 하는 데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남자들은 정확하게 정반대의 경험을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똑같이 돈 없고 어리숙하게 여행을 다녔던 그들은 시골 식당에서 언제나 환대와 귀여움을 받았으며 계란후라이 같은 것이 덤으로 더 얹혀 나오는 식의 경험들을 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을 임팩트 있게 전달했고 주절주절 말이 길어봤자 좋을 것이 없으므로 나는 그 여행의 더 자세한 장면들은 묘사하지 않는다. '놀고 가자'며 우리를 쫓아오던 네 명의 남자들이나, 매운탕에 공기밥 네 개를 주문했다가 쫓겨나고 만 횟집 같은 일들은 하나도 재미있지 않으므로 이야깃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신경 써서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덕담을 건네던 친절한 동네 사람들, 새살거리며 밤새 놀던 우리의 젊음 같은 것들로 그것은 충분히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결론지을 만했다. 우리는 아무도 죽거나 강간당하지 않고 무사히 여행에서 돌아왔다. 우리를 스쳐간 것들은 ㄴ자 욕설이 붙기는 했으나 어디 가면 '싸가지'를 챙기라는 가르침, 또는 함께 놀고 가자는 제안 같은 것들에 불과했다. 쉽사리 호의의 가면을 쓰는 혐오 표현에 우리는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때 스물두 살이었던 우리를 스쳐갔던 공포 같은 것은 이야깃거리가 되지 못한다. 누가 죽은 것도 아니니까 말이다. 세상 여성들의 속을 털어 보면 그런 먼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올 것인데, 그런걸 말해 봤자 별일 아니라고, 좋은 뜻이었다고, 너희가 먼저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되묻는 목소리에 부딪치기 일쑤다. 우리를 둘러싼 공기 속에는 그런 수많은 먼지 같은 일들이 있었고, 보이지 않으나 거대한 그 먼지구름은 끝내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으로까지 연결되고야 만다. 그 탁한 구름에 질식해 증오가 높아진 세상은 남녀 모두에게 숨쉬기 힘든 곳이 된다.

비가 오지 않으나 날이 흐리다. 신당역 사건으로 목숨을 잃으신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종교칼럼

이중 잣대

황 성 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우리 지역에서 사회복지 현장과 이주민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이들이 문화와 생활 환경의 변화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에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외와 가난 때문에, 나라와 언어가 다르고, 얼굴색이 다르다고 해서 겪게 되는 문화적인 충돌이나 이해의 충돌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에 내몰리지 않도록 돕는 것은 당연하다.

소외의 현장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을 만나 그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나라에 와서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이주민들이 사업주와 그 사회로부터 폭력과 차별이라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철저한 이념 교육과 통제 사회를 탈출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우리 지역에 이주해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당연하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차별 대상인 이주민들, 어디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고, 사랑받아야 할 이들이며, 사람이라면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천부인권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과 시각은 고착되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이들을 차별과 우월 의식으로 하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주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자주 만나지만, 마음 안에서는 이미 하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시선은 많이 성숙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점점 우리의 자리를 넘본다는 우려와 함께 놀라워하고 두려워하여 혐오의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한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인가? 김무인은 '다문화 쇼크'라는 책에서 "한국 원주민이 느끼는 불안감의 근원과 그 불안감의 공격적 표출은 … 이주민들을 '타자화'(otherization)하며, 그들은 '우리'가 아닌 것이다"라고 표현한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에 속하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에는 감탄고토(甘呑苦吐)의 마음이며, 함께 살아가지만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원할 때 찾을 수 있는 똠양꿍이나 쌀국수지만, 이 음식의 종주국 이주민들에게는 이질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중 잣대'란 유사한 상황에 대해 각자 다른 지침이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모든 상황에 같은 지침이 적용되는 것이 이상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중 잣대'의 단적인 예는 어떠한 규범(언어, 문장, 사회적 규범, 규칙)을 한쪽의 집단에 적용되는 것은 허용되고, 다른 한쪽의 집단에는 허용하지 않거나 금기시하는 경우다.

'이중 잣대'의 의미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내로남불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 대립하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 경쟁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정치적인 불안과 안하무인(眼下無人)의 태도와 무질서와 탐욕이 가득한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에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중 잣대'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그 내면에는 공유·보편·나눔·희생보다는 독점·기득권 유지·거짓과 위선의 밀실 정치·철저한 탐욕의 정신 등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결국 '이중 잣대'는 서로를 파괴할 뿐이고 더 이상 공존과 상존은 불가능해진다. 수평적 관계는 없어질 것이고, 시작과 끝을 모르는 수직적 관계만 남아 서열과 폭력과 차별만이 있을 뿐이다.

마태오 복음 7장 12절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중 잣대'의 시각을 지닌 이들에게 교훈이 되지 않을까?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차별과 서열, 그리고 폭력을 낳는 '이중 잣대'의 시각으로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인간성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 고

장미꽃을 사랑하는 사람들

황 옥 주
수필가

장미는 영국의 국화다. 붉은 장미 문양인 랭커스터가의 헨리 7세가 흰 장미를 문양으로 한 요크가의 엘리자베스를 왕비로 맞이하면서 장장 30년에 걸친 '장미 전쟁'이 끝을 맺었다. 이후 두 왕의 문양을 합쳐 왕실의 새 문양을 만들어 내면서 나라꽃이 된 것이다.

장미는 아름다움도 향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요염한 꽃이다. 신이 처음 장미꽃을 만들었을 때 향과 미에 취한 큐피드가 다짜고짜 꽃잎에 입술을 댔다. 꽃 속에서 향을 즐기고 있던 벌이 기겁하며 큐피드 입술에 날카로운 침을 박아 버렸다. 놀란 것은 아프로디테, 큐피드 입술의 벌침을 뽑아 줄기에 꽂아 놓은 바람에 장미나무에 가시가 돋게 됐다.

때문에 곱고 향기롭다고 마냥 탐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꽃이 장미다. 중국 속담에 "젊어서 장미 위에 누우면 늙어서는 가시밭에 눕게 된다"는 경구가 있다. 탐닉도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시인 릴케는 장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가시에 찔려 죽었다. 부인과 이혼하고 여행을 즐겼던 릴케에게는 여자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 마지막 연인이 이집트의 니메르 베이 부인으로 알려져 있다. 릴케는 먼 길을 달려온 애인을 위해 장미를 꺾어 모으다가 손가락이 가시에 찔렸다. 그러나 백혈병에 걸린 줄 모르고 치료만 하다가 파상풍으로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북유럽을 여행했을 때다. 산골짝 도로변에 세워진 작은 비석 앞에서 가이드가 잠시 버스를 세웠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가족이 세운 비석이라며 이름과 사망일이 적혀 있단다. 내겐 참으로 생경한 장면이었다. 평소 망자가 좋아한 꽃이라며 장미가 놓여 있었다. 국화가 흔한 철에 귀한 장미다.

다음 날 도착한 나라가 핀란드였다. 헬싱키의 중심 광장에 이르러 대통령궁이며 정부 청사며 총리 집무실보다 시선을 끈 것이 커다란 동상이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라 했다. 기단에 놓인 꽤 큼직한 장미꽃 화환이 인상적이었다.

핀란드는 600년 동안 스웨덴의 지배를 받다가 1809년부터 독립할 때까지는 스웨덴을 물리친 러시아의 자치령이었다. 러시아 황제와 핀란드 왕을 겸한 사람이 알렉산드르 2세다. 제 나라 수도 광장에 침략국의 황제 동상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알렉산드르는 핀란드 의회를 구성하고 핀란드어 사용을 장려하여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 문화를 지우려 악랄한 짓을 다 한 일제와는 근본이 달랐다.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침공당할 때만 해도 중립국을 고수했던 나라가 이제 나토를 택했으니 알렉산드르 동상이 언제까지 헬싱키 광장에 남아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장미 사랑 얘기의 백미는 아마 '백만 송이 장미'가 아닐까 한다. 조지아의 화가 니코 피로스마니아와 여배우 마르가리타 사이의 짧고 슬픈 러브 스토리를 노래한 시다. 가난한 무명 화가 니코가 악단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미모의 여배우를 보고 첫눈에 반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많은 남자의 관심을 끌던 도도한 여자의 마음이 초라한 화가에게 쏠렸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니코는 마르가리타가 장미를 좋아한다는 것과 생일을 알아냈다. 작은 집을 팔고 심지어 매혈까지 하면서 무려 백만 송이의 장미를 사들였다. 생일날 아침 창문을 연 그녀가 장미향에 감동했다. 그러나 니코에게 머문 웃음과 마음은 너무 짧았다. 장미를 치우는 일도 보통 일거리는 아니었을 터, 사랑은 구걸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막무가내 식 집념에 처절함까지 느껴진다.

러시아 시인이 쓴 '백만 송이 장미'는 러시아 작곡가가 곡을 만들고 러시아 가수에 의해 널리 퍼져 나갔다. 80년대 말 일본 국민가수 가토 도키코는 맑고 경쾌하고 빠른 템포의 이 노래로 선풍적 인기를 누렸었다. 한국에서는 90년대 말 청아한 미성의 심수봉이 대히트를 쳤던 노래다. 그 후 니코 피로스마니아는 극도의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추운 날에 쉰여섯으로 생을 마쳤다. 니코의 그림은 사후에야 인정을 받아 그의 초상화는 화폐에까지 실렸지만 죽은 뒤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리.

결국 시들고 말 것임에도 장미는 사치스럽다. 신화나 전설, 문학작품이나 가곡도 많다. 작가 최인훈이 "장미꽃을 빼고서 서양문학을 말하는 것은 달을 빼고 이태백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일 게다. 문학은 사람들의 얘기다.

社 說

후보지 발표 임박 군 공항 이전 통 큰 정부 지원을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세 곳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해묵은 이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전 대상 후보지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정부의 추가 지원 여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최근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1~3순위를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현재 광주시·전남도와 공동으로 후보지별 이전 사업비와 종전 부지 가치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 작업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이를 수용하는 지역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기존 부지를 개발한 비용으로 새로운 공항을 짓는 '기부 대양여'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이전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1순위에 무안군, 2순위 해남군, 3순위 고흥군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 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무안 등지 주민의 반대 여론이 높아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추가 지원도 중대 변수 중 하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여태껏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광주는 대구·수원 등 국내 다른 군 공항 이전 대상 지역에 비해 기존 부지의 부동산 가격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협의체를 통한 통 큰 국가 지원만이 이전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 이전 지역과 광주·전남을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배후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상생 발전의 전기를 열어 줘야 한다. 아울러 이전 부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소음 완충 지역을 늘려 주민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시민 절반 모르는 자치경찰 주민 참여 확대해야

자치경찰제가 시행 2년째를 맞았지만 광주시민 절반 가까이는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그로 인한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제 조선대에서 열린 '광주 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 방안'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7~8월 광주시민 1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1%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자치경찰제도 시행 후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시민도 50%에 달했다. 자치경찰이 해야 할 일로는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44.2%)과 '사회적 약자 보호'(33.7%)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 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전체 경찰 인력의 절반인 자치경찰이 정착되면 주민들은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가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관리와 운영의 권한까지 주민에게 이양하는 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것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게 한다. 자치 경찰 업무를 맡게 된 경찰은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시도 자치단체장이 아닌 경찰청의 눈치를 더 봐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주민을 위한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막내형' 평가전

마라도나, 메시, 아구에로, 포그바. 축구 팬들에 익숙한 이들은 모두 FIFA U-20 월드컵 최우수선수상인 '골든볼' 수상자들이다. '막내형' 이강인은 2019년 이 대회에서 한국을 결승에 올려놓고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게 했다.

이강인은 일곱 살 때 KBS 예능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에 출연해 축구 천재로 불렸고, 열 살이 된 2011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 발렌시아의 유소년팀에 입단해 일찌감치 드리블과 킥, 그리고 패스 능력 등 기술적 부분에서 최상급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소속 팀 감독의 전술과 맞지 않으면 선수 생활이 순탄치 못한 경우가 있기 마련.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그라시아 감독과의 악연으로 뛰어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벤치에서 보내다 결국 마요르카로 이적했다.

감독과의 악연은 대표 팀에도 이어졌다. 고집 세기로 유명한 벤투 감독이 팀을 오직 자신의 스타일로만 밀고 나가기 때문이다. 특히 벤투는 빌드업과 볼 점유율을 신봉하고 선수 선발 때도 개인의 능력과 기록, 컨디션보다는 자신의 전술 틀에 맞추며 이를 좀처럼 바꾸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강인은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치르는 동안 대표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그러나 벤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한 '빌드업 축구'는 지난 6월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1-5로 대패하며 흔들렸다. 카타르 월드컵 H조의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은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한국보다 전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빌드업이 아닌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벤투호는 월드컵을 두 달 앞둔 지금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이번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1골 3도움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이강인이 있다. 이강인은 처진 스트라이커에서부터 미드필더, 윙어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대표 팀의 새로운 공격 전술을 준비한다. 오늘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은 이강인의 발끝에서 한국 축구의 달라지는 모습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좋은 무대가 될 것이다. /유제관 편집담당 1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